

교육

| 업 준 용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동향분석 자문위원 (jyum94@korea.ac.kr)

▣ 정책동향

□ 교육과학기술부, 광역경제권 인력양성 지원 방안 발표(2008. 9. 13)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의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상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대학의 인력양성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주요 내용
 - '09년부터 3년간 광역경제권 거점대학 인재육성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매년 1,000억 원(광역경제권 거점대학 500억 원, 교육역량 강화 사업 500억 원) 규모를 광역경제권별 신 성장 선도산업 분야 우수 인력 양성에 집중 지원함.
 - 재정 지원사업 개편을 통해 광역경제권의 우수 인력양성을 공급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함.
 - 산학연 협력 우수대학에 매년 300억 원을 투입하여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도입, 산업계 전담교수제 운영, 핵심기술 공동개발 등 산업계 중심의 실질적인 산학연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인력 상호과전, 고용휴직 등 지역대학과 출연(연)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학생의 대학 입학에서 학위수여에 이르기까지 출연(연)과 대학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특화전문대학원의 설치도 지원함.

□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마이스터고 9개교 선정(2008. 10. 3)

- 교육과학기술부는 10월 3일 중견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9개 학교를 선정·발표하였음.
- 지원분야별 산업수요 적합성, 학교개편 방향, 지자체·산업체의 육성의지, 교육과정 편성의 적합성, 현장 마이스터의 교원 활용방안 등 산·학 연계가 잘 되어있고 졸업생의 산업체 연계 채용이 가능한 학교를 선정

표1. 선정학교 명단 9개교

분야	학교 수	학교(지역)	비고
조선	2	거제공고(경남), 군산기계공고(전북)	
자동차	1	부산자동차고(부산)	
반도체장비	1	충북반도체고(충북)	
철강산업	1	합덕제철고(충남)	
전자·메카트로닉스	1	구미전자공고(경북)	국립
기계	1	경북기계공고(대구)	
에너지	1	수도전기공고(서울)	사립
의료기기	1	원주정보공고(강원)	
계	9개교		

○ 향후 계획

- 교과부는 마이스티고로 선정된 학교에 대하여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이들 학교에 대하여 개교 전까지 '산업계와 공동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현장전문가의 교육 참여 등 산학협력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맞춤형 기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KSS)과 연계하여 마이스터 분야별 교육과정·교과서 개발, 공모교장·교사 연수, 기자재 확충을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
- 이와 별도로 우수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학교, 새로운 분야의 마이스티고로 전환을 추진하는 학교에 대하여 사전에 컨설팅을 실시한 후 2009. 1월에 '마이스티고 표준요건(Standard)'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여 추가 선정하여 금번 선정된 학교와 함께 개교할 예정으로, 향후 2011년까지 마이스티고를 50개교로 확대·지정하여 취업 중심의 「전문계고 선도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수준 기초학력 진단 평가 전수 시행(2008. 10. 8)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10월 8일(수)에 초3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함.
- 주요 내용
 -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학교학습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학력이 형성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쓰기·기초수학 3개영역을 평가함.

-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평가기획·출제·문제지 인쇄 제공·결과분석은 국가에서, 전수평가 시행·채점·결과통보 등은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함.
- 국가 차원의 표집규모는 4%이며, 평가결과는 교과별, 성별, 지역별로 분석·발표할 예정임.

□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전수 시행(2008. 10. 14~15)**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10월 14(수)~15일(목)에 초6, 중3, 고1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함.
 - 초6 대상 학교수: 5,813교, 대상 학생수 652,616명
 - 중3 대상 학교수: 3,077교, 대상 학생수 681,776명
 - 고1 대상 학교수: 2,190교, 대상 학생수 683,181명
- 주요 내용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학교 학습이 종료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학습이 종료되는 시기인 중학교 3학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종료되는 시기인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5개 교과를 평가함.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평가기획·출제·문제지 인쇄 제공·결과분석은 국가에서, 전수평가 시행·채점·결과통보 등은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함.
 - 국가 차원의 표집규모는 초등학교 6학년은 4%,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각각 5%를 표집하여 평가결과를 교과별, 성별, 지역별로 분석·발표할 예정임.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공시 대국민 서비스 실시(2008. 11. 28)**

- 교육과학기술부는 12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주요정보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교육정보공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
- 추진 경과
 - 그동안 학교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부 정보를 공개하였으나, 학부모 등 수요자의 중요 관심정보가 누락되어 학부모 및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았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위학교별 공시정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정을 추진하여, 지난 11월 17일 시행령을 제정·공포하고 12월 1일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음.

○ 주요 내용

- 교육정보공시 대상 기관은 초·중·고등학교 11,283개교, 고등교육기관 414개교로 공시대상 기관 전체가 지난 10월부터 정보공시 항목을 입력하고, 시·도교육청 및 항목별 관리기관 등의 확인·검증을 거쳐 교육관련 주요정보를 공시하게 되었음.
-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되는 교육정보는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
- 이와 함께 국민들의 편리한 공시정보 검색을 위하여 초·중·고의 경우 학교정보공시 포털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대학의 경우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별도로 구축하였으므로, 동 사이트를 통해 주요 교육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음.
- 국민에게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교원 현황, 교육여건(시설·학교폭력 발생·환경위생 현황 등), 재정상황 및 급식상황 등 15개 영역 39개 항목, 대학의 경우 대학입시, 취업률, 등록금, 장학금, 재학생 및 교원 현황 등 13개 영역 55개 항목

○ 기대효과

- 교육정보공시를 통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정확한 현상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학교현장에 맞는 적절한 지원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학의 경우 주요정보의 대학간 비교검색을 통하여 학생 및 학부모는 대학 및 학과 선택을 손쉽게 할 수 있고, 대학은 대학의 교육·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

□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 공학기술교육인증제 시범운영(2008. 12. 16)**

- 교육과학기술부는 12월 16일 전문대학 공학교육의 지속적인 질 향상과 공학학위의 국제적 등가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대학 공학기술교육인증제를 도입, 2009년부터 시범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힘.

○ 추진 경과

- 전문대학에도 공학교육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 학계(전문대학)·정부·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학교육인증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
-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조사, 해외 공학인증평가 참관 및 사례조사(남아공, 아일랜드, 미국) 등을 통해 인증기준, 인증절차, 자체평가보고서 양식, 평가 지침 등을 마련하였고, 마련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공청회, 지역순회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

○ 주요 내용

- 2009년부터 전문대학 주요학과인 컴퓨터/기계/전기·전자/건축 분야 등 2~3개 분야 2~3개 대학에 시범인증을 실시
- 시범인증 결과에 대한 분석 및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개선한 후, 2010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규 인증을 시작할 계획

표2. 공학계열 평가인증 운영 계획(2010~2013)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대학수	20	25	30	35
프로그램수	40	50	60	72

○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전문대학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가 정착된 이후에는 인증 프로그램의 졸업생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Sydney Accord 등 전문대학 공학기술교육 관련 국제 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
- FTA협정 체결 등 각국간 고등교육 인력의 국제적 이동성(Mobility) 증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전문대학 공학기술교육인증제 도입으로 향후 기술인력의 세계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 주요정책 추진방안 발표(2008. 12. 19)

- 교육과학기술부는 12월 19일 학생용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 초등 영어 수업시수 확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어교육 정책 추진방안을 발표

○ 주요 내용

주요 방안	주요 내용
학생용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영어시험(TOEIC, TOEFL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 학생용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본격적으로 개발·도입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읽기·듣기·말하기·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인터넷 기반시험(IBT)으로 개발 - 시험도구 개발 및 예비시험('09), 시범 시행('10~'11)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2년에 본격 시행될 계획
초등 영어 수업시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부터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간을 주 1시간씩 늘리기로 결정 - 초등 3·4학년 영어수업 시간은 현재 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초등 5·6학년 영어수업 시간은 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게 됨. - 확대되는 초등영어 수업시수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에 맞추어, 3·4학년은 2010년, 5·6학년은 2011년부터 적용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영어수업 및 중·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필요한 영어교육 전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내년도부터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 - 신분: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의 강사 신분을 가지되, 신분안정을 통해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임용할 계획 - 자격: 원칙적으로 초등 및 중등 영어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 능통자로 하되, 인력 수급 및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별도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자에 한해 미소지자도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역할: 영어수업, 영어교육 교재 관리 및 개발,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등 영어 관련 업무를 담당 - 채용규모: 초등학교 영어 수업 확대에 따라 최대 4천 명이 신규 채용될 예정이며,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시도교육청 또는 개별학교의 수준별 수업 추진 상황에 따라 학교별로 채용될 예정으로,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2개 학급을 3개 학급으로 편성하여 영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최대 6천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 - 배치 시기: 초등 영어수업이 확대되는 2010년부터 단위학교에 배치될 계획

○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교육에 있어서의 초·중·고와 대학, 기업체의 역할 분담 등 중장기적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한편, 학교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고 영어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 과제들을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진행하여 학교중심의 영어교육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임을 밝힘.

- 이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 능력이 없는 중·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질 높은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를 대폭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학교 영어교육이 내실화되어 사교육 수요가 학교 내로 흡수됨으로써 사교육 의존도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평가·인증제 실시를 위한 관련 법령 확정(2008. 12. 9)**

-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도 확정되어 이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
- 주요 내용
 - 2009년부터 대학은 정보공시에 이어 2년에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외부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음.
 - 이와 같은 자체평가와 외부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대학은 스스로 교육·연구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전계획 수립, 성과관리를 실시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의 질 제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됨.
 -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는 평가결과를 언제든지 쉽게 알 수 있어,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한 학교·학과 선택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에 의거하여, 교원, 대학평가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9인 이내로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기관 지정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

□ **교육과학기술부, 국립학교 설치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2008. 12. 4)**

- 교육과학기술부는 12월 4일 「국립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국립대학(교육대학 포함) 부설 40개 유·초·중·고등학교 및 3개 국립공업고등학교 등 43개 국립학교를 2009년 3월 1일자로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을 반영
 - 국립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되면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관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되고, 교원 및 직원 인사, 예산 지원 등도 시·도교육청을 통해 이루어짐.
 - 학교가 보유한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은 시·도교육청에 양여 또는 무상 사용하도록 할 계획임.
 - 부설학교에 대해서는 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학교장이 업무협약을 통해

- 부설학교로 지정하고 현재의 현실습 및 연구 기능을 계속 유지할 예정
- 학교 명칭은 “국립” 표기만 제외하고 현재의 명칭이 그대로 유지됨.
- 또한, 그 동안 정부가 제한해 왔던 국립대학 단과대학·대학원의 설치범위 및 부총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총장이 학교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
 - 전문·특수대학원의 장을 대학원의 장 또는 관련 단과대학 및 학부의 장으로 겸보할 수 있도록 확대
 - 부속시설 평가주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학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실시 (2008. 10. 28)**

-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근거하여 외국인학교의 설립주체, 입학자격 및 비율, 학력인정 등의 사항을 규정한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08. 10. 28(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
-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 국내 외국인학교가 체계적으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우수한 외국인 학교 설립이 촉진되고, 기존 외국인학교(전국 46교, 10,993명 재학)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선진국 수준의 우수한 외국인학교 설립으로 초·중등의 어린 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안심하고 가족을 데리고,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외국인 기업 유치 및 투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교과부 지침('99)	대통령령 제정(안)
설립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 국내학교사립법인
입학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 5년 이상 해외거주자 • 이중국적자 및 영주권자 (입학비율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외국인의 자녀) • 3년 이상 해외거주자 (입학비율 : 정원의 30%내)
학력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학력인정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에 의해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학력 인정(내국인은 국어·국사 이수)
재정지원 지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 근거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 근거 마련 • 교육청 지도감독권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 9. 25)**

- 교육과학기술부는 9월 25일 시·도교육감의 인사자율성 확대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법제화를 도입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
- 주요 내용

주요 내용		현 행	개정안
부교육감 임명절차 개선		교육감 추천 → 장관 제청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임명	교육감 제청 → 장관 경유 → 대통령 임명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설치	신고	시도교육감을 당연직 회원으로 하여 법률로 명시
	기능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 제출	- 국가 이양 및 위탁사무 수행 - 시도 공동사무 협의 및 연구개발 -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대학입학전형과 관련한 협의
	운영	-	- 실무협의회 및 사무국 설치 - 시·도 공무원 파견 - 분담금 납부 의무화

▣ **연구동향**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TIMSS 2007 결과 발표(2008. 12. 1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2월 10일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이하 TIMSS) 2007 결과,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수학 성취도는 세계 2위, 과학 성취도는 세계 4위로 매우 높은 성취를 보였다고 발표함.
 - TIMSS 2007 결과는,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에서 총 50개국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가결과로서 우리나라는 150개교의 중학교 2학년 5,448명의 학생들이 표집으로 참가
- 주요 결과
 - TIMSS 1995, 1999, 2003과의 성취도 추이를 비교한 결과,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는 향상되었고(581점 → 587점 → 589점 → 597점), 국제순위는 매우 우수한 수준을 유지함. 과학 성취도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2007년에 다소 하락함(546점 → 549점 → 558점 → 553점).

- 성취수준별 학생비율을 살펴보면 수학의 최상위권인 수월수준 학생 비율을 TIMSS 1995, 1999, 2003과 비교할 때 각각 9%, 8%, 5% 상승, 상위권인 우수수준 학생 비율은 1995년에 비해 4% 상승, 1999와 2003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한편 과학의 최상위권인 수월수준 학생 비율은 TIMSS 1995, 1999, 2003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상위권인 우수수준 학생 비율은 1995년과 1999년에 비해 4% 상승했으나 2003에 비해 3% 하락함.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2008년 평생학습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08. 11. 26)**

-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08 평생학습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동 조사는 25~64세 성인을 대상으로 형식교육(학교교육 참여)과 비형식교육(직장연수 및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 강좌 참여)을 포괄하여 지난 1년간(2007. 7~2008. 6)의 평생학습 참여실태를 알아보는 조사로써,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되었음.
- 주요 내용
 - 2008년도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참여율은 26.4%, 형식교육 4.1%, 비형식교육 23.9%로 2007년 조사결과와 비교해서, 평생학습 참여율은 3.4%, 형식교육 참여율은 1.6%p,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2.5%p 하락하였음.
 - 2008년도 직업관련-비형식교육 참여율은 11.7%로 2007년 참여율 9.2%와 비교하면 2.5%p 증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평균 참여율 18%와 비교할 때 낮은 편
 - 2008년도 1인당 연간 평생학습 교육비는 101만 원으로 2007년(142.8만 원)과 대비하여 41.8만 원 감소
 - 평생학습 참여의 장애요인으로는 '시간이 없어서(가족부양 책임 때문)'가 81.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근무시간과 겹쳐서'(40.1%), '교육·훈련비용이 너무 비싸서'(33.8%) 순이었음.
 - 형식교육의 성과로는 '교양함양·지식습득 등 자기계발(86점)'이 가장 높고, 이어 '정신적 건강 유지'와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이 78점으로 동일

하였으며 ‘육체적 건강 유지’, ‘성과급, 연봉 등 소득증대’, ‘승진 등 고용 안정’이 5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비형식교육의 성과로는 ‘정신적 건강유지(82점)’이 가장 높고, ‘교양 함양·지식 습득 등 자기계발(80점)’, ‘직무관련 업무능력 향상(74점)’ 순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사회참여증가’가 5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무형식학습은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나 사실 학습’ 참여율이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역사적/자연적/산업적 장소를 방문하여 학습(47.4%)’, ‘인쇄매체를 활용한 학습(37.5%)’ 순으로 참여율이 나타남.
- 무형식교육의 성과로서 ‘가족, 친구 또는 직장동료나 상사의 도움이나 조언을 통한 학습’과 ‘컴퓨터나 인터넷 활용’에 대해 73.9%, 73.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인쇄매체 활용 학습’도 69.1%로 높은 도움정도를 보여주고 있음.
- 평생학습 참여효과는 전반적으로 형식교육의 성과가 비형식교육의 성과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직업관련-비형식교육의 참여율과 참여시간이 아직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현저히 저조한 수준이나, 작년보다 평생학습 참여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을 볼 때 향후에는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됨.

□ **교육과학기술부·한국학술진흥재단, 2007년도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2008. 11. 14)**

-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2007년도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함.
- 주요 결과
 - 4년제 대학(251개교)에 지원된 연구비 총액은 3조 2,855억 원으로 '06년 2조 6,733억 원 대비 22.9%(6,122억 원) 증가
 - 2007년 대학연구비 총액 중 정부 지원이 전체의 79.8%인 2조 6,215억 원으로 '06년 2조 946억 원 대비 25.2% 상승
 - 2007년도 4년제 대학 전임 교원들이 발표한 논문 수는 총 52,072편으로 2006년도의 51,400편 대비 1.3% 증가
 - 대학 전임교원이 2007년 산출한 SCI급 논문 발표 수는 총 15,618편
 - 2007년도 4년제 대학의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는 각각 6,331건,

- 3,911건으로 전년도 4,887건, 3,503건에 비해 각각 30%, 12% 증가
- 기술이전건수와 기술이전료는 981건, 163억 원으로, 전년도(565건, 88억 원)에 비해 각각 74%, 84% 상승

□ 통계청, 2008년 사회통계조사 결과 발표(2008. 10. 17)

- 통계청은 10월 17일 교육, 안전, 환경 부문에 대한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함.
- 교육부문 주요 내용
 -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비율(51.0%)은 2004년 대비 4.5%p 증가
 - 학교교육의 효과: 학교교육의 효과는 「지식·기술 습득」 측면에서 가장 좋으며, 2004년과 비교하면 모든 부문에 걸쳐 효과가 높아졌다고 느낌
 - 자녀유학: 학부모의 48.3%가 자녀유학을 원하며, 그 이유로 '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로 키우기 위함(18.6%)' 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음.
 - 교육비 부담 및 요인: 학생이 있는 30대 이상 가구 중 10가구에 8가구는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며, 교육비 부담요인은 보충교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교육기회의 충족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10명중 4명이 만족
 -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전공 분야와 직업의 일치도는 2000년 이후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
 - 기대하는 교육목적: 대학이상 교육을 받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49.0%)' 임.

❖ 교육비 동향

□ 2008년 3/4분기 월평균 교육비,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

- 2008년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249만 3천 원으로 나타남.
- 월평균 교육비는 38만 4천 원(소비지출 대비 15.4%)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함.

표3.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총액 대비 교육비 지출

단위: 천 원,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2006 3/4			2007 3/4			2008 3/4		
		구성비	증감률		구성비	증감률		구성비	증감률
소비지출	2,160.6	100.0	0.4	2,380.4	100.0	10.2	2,492.9	100.0	4.7
교육	293.3	13.6	0.8	328.2	13.8	11.9	384.1	15.4	17.0

주: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DB(http://www.kosis.kr).

- 2008년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38만 4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0%가 증가하였고, 교육비를 구성하는 전 항목이 전년 동기 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임.
- 동분기 월평균 교육비 지출 중 보충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7.3%(전년 동기대비 22.9% 증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납입금은 39.4%(전년 동기대비 10.4% 증가)로 그 뒤를 이음.

표4.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 내역 추이

단위: 천 원,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2006 3/4			2007 3/4			2008 3/4		
		구성비	증감률		구성비	증감률		구성비	증감률
교육	293.3	100.0	0.8	328.2	100.0	11.9	384.1	100.0	17.0
- 납입금	128.9	43.9	7.6	136.8	41.7	6.1	150.9	39.3	10.4
- 교재비	9.2	3.1	8.5	9.7	2.9	5.0	10.1	2.6	4.3
- 보충교육비	152.2	51.9	-4.8	178.9	54.5	17.5	220.0	57.3	22.9
- 문구류	3.0	1.0	-1.0	2.9	0.9	-2.1	3.1	0.8	7.5

주: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DB(http://kosis.nso.go.kr).

- 2008년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보충교육비 지출을 살펴보면, 자녀의 과외비를 나타내는 학원 및 개인교습비는 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한 20만 2천 원, 기타 보충교육비는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한 1만 8천 원으로 나타남.

표5. 보충교육비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전년 동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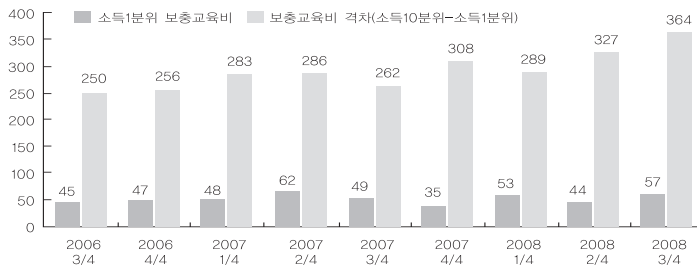
구 분	2006 3/4		2007 3/4		2008 3/4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보충교육비	152.2	-4.8	178.9	17.5	220.0	22.9
- 학원 및 개인교습비	138.0	2.9	162.6	17.8	201.6	24.0
- 기타 보충교육비	14.2	-44.9	16.3	14.9	18.4	12.8

주: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DB(http://kosis.nso.go.kr).

□ 소득 분위별 교육비 격차, 소득 최상위(10분위)가 최하위(1분위)의 약 7.4배

- 2008년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최하위 10%(1분위) 계층의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소비지출 123만 9천 원의 11.5%인 14만 3천 원, 소득 최상위 10%(10분위) 계층은 월평균 소비지출 426만 2천 원의 16.4%인 69만 9천 원을 교육비로 지출함.
- 10분위와 1분위의 교육비 지출액 격차는 55만 6천 원으로, 10분위의 교육비 지출이 1분위의 3.9배로 나타남.
-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분위별 보충교육비는 10분위 42만 2천 원, 1분위 5만 7천 원으로 36만 4천 원의 격차를 보였으며(10분위가 1분위의 약 6.4배), 이는 전년 동기(26만 2천 원) 대비 10만 3천 원(39.2%)이 증가한 것임(그림 1).

그림1. 소득 분위별 보충교육비 격차



주: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DB(http://kosis.nso.go.kr).

□ 교육물가지수

- 2008년 11월 교육물가 지수는 118.2로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11월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3% 하락, 전년 동월 대비 4.5% 상승).

표6. 교육물가지수 추이

(2005=100)

연도	2007				200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총지수	105.7	105.9	105.9	106.3	106.8	107.2	108.2	108.8	109.7	110.4	111.2	111.0	111.1	111.0	110.7
교육	112.1	112.2	112.2	112.4	112.9	113.1	117.7	118.0	118.1	118.1	118.1	118.1	118.2	118.1	118.2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DB(http://kosis.nso.go.kr).